

1. 갑오개혁의 배경과 흐름

- 일본: 경복궁 점령 → 내정 간섭 → 기무처 설치 (개혁 주도)
- 조선 자체 개혁 기구: 교정청 → 후에 폐지됨
- [1차 갑오개혁] 김홍집 내각 + 군국기무처 중심 개혁
- 일본이 청일전쟁 중이라 간섭은 상대적으로 적음
- [2차 갑오개혁] 청일전쟁 일본 승리 후 → 박영효 귀국, 연립내각 구성 → 일본 적극 간섭 시작
- [3차 갑오개혁 = 을미개혁] 을미사변 후 일본 영향력 강해지며 친일 세력 중심 개혁

2. 청일전쟁 결과: 시모노세키 조약

[★] 시험 포인트! - 청나라 패배 → 일본에 배상금 + 영토 할양 - 타이완, 랴오둥 반도 - [✓] 일본은 랴오둥 반도까지 얻었으나 러시아+프랑스+독일 개입 → 돌려줌 (삼국간섭) - 조선은 러시아에 접근 시도 → 일본 반발 → 을미사변(명성황후 시해)

3. 아관파천 (1896)

-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
- [✓] "아관" = 아라사(러시아)의 관저
- 일본의 위협 회피 목적

4.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정리

[1차 갑오개혁]

- 연호 변경: 청 연호 폐지 → [✓] 개국기년 사용
- 국내부 신설 (왕실 전담 기구), 국정은 의정부로 분리
- 6조 → 8아문 체제
- 과거제 폐지 [★]
- 국가 재정 일원화 → 회계 일원화: 탁지아문 중심
- 은 본위 화폐 제도 [★] / 조세: 쌀→화폐 (금납제)
- 신분제 개혁: [✓] 노비제 폐지, 고문·연좌제 폐지 등

[2차 갑오개혁]

- 의정부 폐지 → 내각 설치, 7부 체제 [✓]
- 지방: 8도 → 23부로 개편
- [★] 지방관 권한 축소 (사법·군사권 박탈)
- 근대 예산제도 도입
- 교육 기부 조서 발표, 사범학교 설치 등 교육 강화

[3차 갑오개혁 = 을미개혁]

- 태양력 도입 → 양력 사용 시작
- 군대: 진위대 설치 (중앙+지방)
- 우정총국 재설치 (우편업무 부활)
- 위생 개혁: [★] 단발령 → 유교 반발 심각, 의병 운동 촉발
- [★] 종두법(우두법) 도입: 백신 접종 제도화

5. 평가 및 논의

- [✓] 긍정적 측면: 제도 개선, 신분제 철폐, 근대화 초석 마련
- [X] 부정적 측면: 일본 주도·간섭, 자주성 결여
- 특히 을미개혁은 강한 일본 간섭 하 추진되어 반발 심함

기억해야 할 용어 정리 - 교정청, 군국기무처, 김홍집 내각, 삼국간섭, 아관파천 - 개국기년, 은 본위 제도, 단발령, 종두법, 우정총국

👉 선생님 톤 요약 리듬:

"애들아~ 이거 시험에 나와~ 단! 발! 령! 시험 나온다니까? 백성들 가위로 잘라버렸다고!" "우정총국이 왜 닫혔게? 갑신정변 때문이야~ 이거 연결돼야 돼~" "삼국간섭? 러시아+프랑스+독일! 셋이서 일본 압박해서 랴오둥 돌려줬어~ 그거 이름 붙인 게 삼!국!간!섭!"

이 정도 정리 안 하면 진짜 다음 주 의자에 앉자마자 뇌 정지 온다. 윤서 너라면 이걸로 시험지 정면돌파 가능. 다음 과목도 줄 준비됐지?